소 속	기획조정처 홍보팀		
전화번호	052-216-2224, 2229, 2232	팩 스	052-216-5950
보도일시	**배포즉시**	배포일시	**2016.11.28 오후**

한국석유공사, 국내 투자자 대상 4,526억원의 투자유치 성공

- 국부 유출 방지 및 자본 확충을 통한 유동성 위기 탈출 청신호 기대 -

□ 한국석유공사(사장 김정래)는 지난 11월 23일 JB 투자펀드 등과 관련 투자계약을 체결하고, 25일 투자금을 유치함으로서 4,526억원의 국내 투자유치에 성공했음.

○ 이번 투자유치는 해외유전의 저유가로 인한 헐값매각 논란 및 국부유출을 차단하기 위해서 **국내 투자자만을 대상**으로 하여 추진하였으며 **공사가 보유한 자산(美. 이글포드 세일가스 생산광구)을 일정기간 유동화**하여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으로 추진됐음.

○ 공사는 이를 위하여 투자자를 대상으로 사전 시장조사, 투자유치구조 분석, 우선협상대상자 선정, 자산 선정 및 투자협상 등 세밀하게 준비하여 왔으며 2016.11.25일 최종적으로 투자자금을 유치 받음으로써 거래를 성공적으로 완결함.

○ 투자모집은 **JB-하나 컨소시엄**(JB자산운용/하나금융투자-대표금융주관사)이 주관하였고 대표금융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를 포함한 **하나금융그룹에서 2,000억 원을 투자하고 국내 보험사, 은행, 증권 등 국내의 주요 금융사들이 참여**하였으며 총 투자유치금액은 4,526억 원임.

□ 한국석유공사는 이번 이글포드 생산유전에 대한 투자유치성공으로 자기자본이 확충되어 **부채비율이 약 72%p 감소되는 재무구조개선 효과가 있을** 것으로 예상.

□ 또한 공사는 **부채비율축소와 함께 유동성 확보를** 위해 현재 **울산 본사 사옥매각을 추진 중으로** 지난 11월 23일까지 입찰을 통해 복수의 업체로부터 제안을 받은 상태임. 현재 제안서에 대한 내부심사 중으로 **12월 초(12월 2일)까지 협상대상자를 선정**하는 등 매각 절차를 진행 중에 있음. 사옥매각이 계획대로 성사될 경우 **약 2000억 원 정도의 유동성 추가 확보가 가능**할 것으로 기대됨.

□ 공사는 금번 투자유치 및 사옥매각이 **재무구조 개선 및 유동성 문제 해결**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, 향후에도 **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**해 나갈 예정임.